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남각 무전 그리고 만화

**남** 각이 지옥의 8대지옥과 8한(寒) 지옥을 차례차례로 떠돌며 극한의 고통을 받은 나머지 때로는 그가 살았던 사바세계에 있는 고지옥(孤地獄-邊地獄)에도 떠올라서 단 하나만으로 갇혀있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한 무전은 커다란 고기 속에 삼켜져 그 안의 별들로 지내다가 고기 밖으로 빠져 나가서 수미산의 정상에 이르러 수명선 끝으로 어떤 불안정한 표적이거나 낚시의 찌처럼 보이는 바다 가운데 자라가 되어 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만화는 마치 폭죽(爆竹)처럼

것이다. 그야말로 6도중생으로서의 최상의 삶을 누리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사바세계 남섬부주(南嶺部州)에 태어날 부처가 반드시 이 하늘에서 머무는데 이곳의 천상인(天上人)의 키는 2리이나 크고 무게는 1수 반(銖半), 수명은 4천세, 인간의 4백세가 이 하늘의 1주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술천에서 빛을 뿜어 사바세계(十方世界)를 비출 때 저 고통만의 지옥에서 지난 날의 어떤 선업(善業)이 그 동기가 되어 그 도술천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따라 곧장 도술천 천상에 태어나는 특별한 승화(昇華)도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



40

럽 하늘 속으로 한없이 솟아 올라서 그곳의 우주 허공계 가운데서 지친 심신으로 멀찍이 있는 것을 천상계의 사자(使者)들이 발견해서 그 사자들의 날개에 힘 입어 천상계의 외원궁(外院宮)에 입실(入室) 할 수 있었다.

천상계 도술천 내원궁은 외원궁 안에 따로 있거나와 진작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함께 지내다가 석가보살이 먼저 사바세계의 중생계에 내려가지 않았던가. 이미 미륵보살의 하생(下生)이 정해진 것이었는데 바로 그 미륵보살에게 호소해서 '내가 먼저 사바세계 중생으로 태어나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니 나에게 양보하오'라는 간절한 당부 때문에 미륵보살이 내려갈 차례에서 물러선 것이다.

그런 다음 석가보살이 사바세계의 부처가 되어 중생을 사량하다가 그 사바세계가 다한 뒤의 59억8천만년 뒤의 어느 시기에 도술천에서 부처가 된 미륵불이 내려가 사바세계 다음에 융화세계를 주재할 것이다.

그 도술천은 어디인가. 바로 수미산 꼭대기에서도 12만유순이나 더 올라가야 하는 하늘이다. 육계(欲界) 6천(六天)의 한 군데이거나와 아래로부터 육계 사천왕(四天王) 도리천(兜率天)아마천(夜摩天)이 있고 그 위에 바로 도술천이 있는 것이다.

이토록 높은 경지로서의 천상계에도 아직 중생의 욕(欲)과 정(情)에 잠겨있는 상태이고 도술천 위의 화락천(化樂天)이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좀 나은 경지로써 들뜬 마음이 많으나 그것이 잠기지 않고 뜰지도 않으면서 5육락(五欲樂)에 자극히 만족하는 곳이다.

그러는 동안 그 하늘에서 다음에 부처를 이룩한 보처(補處)의 보살들이 머무는

곳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전해오는 석가여래의 8상도(八相圖)나 그밖의 불화(佛畫)의 감로담화(甘露演說)와 어떤 관각화를 통해서 도술천이 마치 이승의 한 숲속의 장원(莊園)처럼 그려지고 있거나와 수미산으로부터 더 아득히 높은 하늘 속의 그 우주 궁전이아말로 중생계가 도달할 수 있는 한 궁극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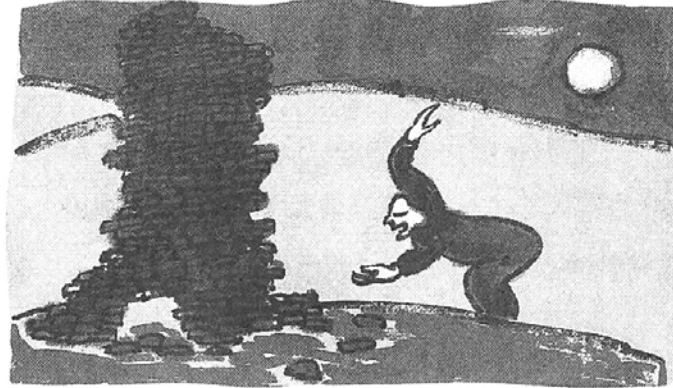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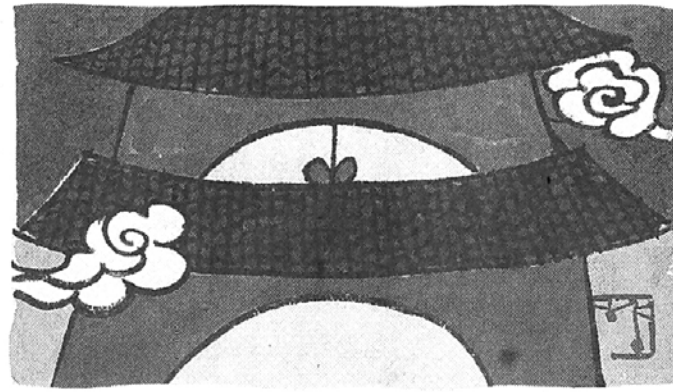
무선 그 하늘 속의 궁전은 인간의 욕망이 한없이 그려낸 재보(財寶)의 열원(七寶)의 자채로서의 금·은 따위의 7보(七寶)로 지어진 지극히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하늘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거기에 외원궁(外院宮) 내원궁이 있다. 외원은 여러 하늘사람들의 오락(娛樂)을

## 도술천에 태어난 만화는 하늘사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우리는 곳이고 내원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특수한 곳이다. 그곳에서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함께 일생부처로 살고 있다가 한 보살이 먼저 사바세계 인간계로 떠난 것이다. 그가 내려간 곳이 인간계라고 하지만 그곳은 인간과 축생 아귀 아수라들의 온갖 중생이 뒤섞여 살면서 인간의 전횡이 차츰 사나워지는 곳이었다.

바로 이런 도술천 외원에 만화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를 이끄는 행운의 인도자가 바로 아마천으로 가는 하늘사람이었는데 그 아마천의 수명 2천세를 다한 하늘사람이 그곳에서 오락을 아껴서 누린 업으로



도술천으로 승진되어 태어날 때 그 승진에 따라붙은 것이었다.

어떤 업은 다른 업의 힘에 의해서 큰 과도더미에 조각배가 휩쓸리는 것처럼 휩쓸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실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엄밀함과 달리 타업(他業)에 의한 이익의 한 예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예외의 사건은 언젠가 어김없이 보상받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아마천은 시간에 따라 오락을 받는 하늘이므로 도술천의 행복과는 견줄 수 없게 낮은 곳이다. 그런데도 인간계의 지상에서 16만 유순이나 높은 곳에 있는 천상계의 한 군데였다. 바로 이 아마천으

로 태어날 몸이 도술천에 태어난 것이 우선 만화의 영광이기도 하였다.

중생이 아주 오래동안, 고대인도의 시간개념으로 치자면 수만 년의 겁(劫)의 세월을 선업을 쌓아 가며 생사를 거듭하는 동안 어느덧 보살의 지리에 오르게 되거나와 그 보살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 바로 천상계 도술천 내원궁이다.

사바세계의 단위는 점점 달라서 왜 그렇게도 보살의 키는 2리(8km)나 되는지 만약 그런 키의 몸이 석양이라도 역광(逆光)으로 등지고 서 있다면 그 그림자는 갈림길이나 긴 곳을 뿔어날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곳에서 4천년동안의 수명이나 사는 것이므로 그것도 사바세계에서는 가장 긴 역사시대의 공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다.

나비 한 마리의 바사바사 말라버린 시체는 물론이거니와 하루살이 따위의 무더기 먼지 같은 시체의 생애의 짧은 것과 도술천의 긴 수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만화가 도술천 외원궁에 그의 예상에 그것은 이미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곳에서 사는 동안의 내용이 그 세상의 진면목을 말해주기 마련이다. 가령 만화가 도술천 외원궁에 그의 예상에는 맞지 않게 태어난 이래의 행복은 그것을 시간으로 짤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지옥계에 태어난 남각은 그

살이 많아 그 미륵보살의 빛을 통해서 지옥중생을 살피다가 문득 한군데의 고지옥 사막에 시야의 초점이 맞춰져서 남각을 볼 수 있었다. 이같은 확인은 도술천 외원궁에 있는 신창의 보살인 만화의 간곡한 호소로 된 일이었다.

원의 미륵보살이 외원의 만화에 게 알렸다.

“만화보살, 그대가 그렇게도 찾고 있었던 남각이라는 지옥 중생을 찾을 수 있었다네.”

“보살이시여! 정녕 기쁘옵나.”

“그 기쁨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옵니다. 이 천상락(天上樂)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제 전생의 반려(伴侶)였던 남각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

“남각은 지옥공부를 잘하는 것 같네”  
 “보살이시여, 보살의 빛 자비의 빛으로 그를 도술천에 태어나게 하면 어떨지요”  
 “만화보살, 그대는 너무 다급한 발원을 일삼고 있네 꼭 옛날의 석가 보살과...”

의 열원 그대로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지옥의 고통에도 실로 수많은 종류의 극단적인 고통이 있다. 남각은 그런 고통 중의 몇가지를 받은 나머지 이미 제대로 의식과 감정을 추스릴 여지도 없는 생명의 폐허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지옥계의 중생 이동일정에 따라 고지옥(孤地獄)으로 밀려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고지옥은 반드시 수미산 밑의 지하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도리어 그가 살던 조선땅 서해안이나 다름 바 없는 사바세계의 어느 곳이었다.

아니 그곳은 고대의 동서 문명과 무역의 통로였고 통속의 불교가 중국대륙으로 넘어오는 조선땅 서해안까지 오래되는 나라의 유적지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너지다가 만 전탑(塔

아오니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층 더할 따름이옵니다.”

“남각은 지옥 공부를 잘하는 것 같네.”

“그러하오나... 보살이시여 보살께서는 도술천자(兜率天子)이시기 때문에 지옥천 자이시기도 하옵니다. 보살의 빛 자비의 빛으로 그를 이끌어 올려 이 도술천에 태어나게 하면 어떠합지요?”

“만화보살, 그대는 때로 너무 다급한 발원(發願)을 일삼고 있네그러, 꼭 옛날의 석가보살과 비슷합데가 있네...”

“황공하옵니다.”

“여보게 만화보살, 사바세계에도 한 여왕이 이 세계에 대하여 몹시 겸손해져서 도술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신하들에게 그보다 아래인 도리천에 태어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했는지 않은가? 신라의 선덕여왕이 아마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녀도 지금은 도리천의 수명을 다하고 나서 그를 사랑했던 사나이 지귀(志貴)가 형체없는 중생으로 태어나 공중을 떠도는 곳으로 가서 형체 없는 중생이 되어 함께 떠도는 중이지만.”

“보살이시여.”

이제 만화는 남각을 구제하려는 뜻을 더 재촉할 수 없이 제 처소로 돌아갔다.

내원궁은 외원궁에서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다만 내원궁의 보살이 외원궁에 드나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외원궁으로 미륵보살의 시자(侍者)인 인생(人生)보살이 나타난 것은 며칠 뒤의 일이다. 그 며칠이라는 것도 사바세계 인간계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장구한 것이겠는가.

그림·조항숙

**책방 여시아문**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의 성장은 곧 불교문화의 성장입니다

**독서회원 가입**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서점 발행 신간안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의 충직한 서비스로 알찬 독서생활을 만끽하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님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동선판매**

미처 회원가입을 못하신 고객 여러분도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적을 신청해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며 우송료는 본 서점이 부담합니다.

**김희수 (회생)**

중로에 나오면 항상 이곳에 들러요.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고르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정영 (불교극단 비평, 대표)**

저야 뭐, 항상 내 집처럼 드나들죠. 책방 여시아문과 같은 문화공간들이 어서어서 자라서 불교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진숙 (주부)**

이렇게 번듯한 불교 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참 좋네요.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